

“호남 잡아라” 문재인-안철수 외나무다리 결투

민주·국민의당 격돌... 첫발 표심 대선 승패 가를 변수로

양자대결 조사... 민주 “인위적 설문” vs 국민 “남의 탓만”

여야 주요 정당의 후보가 모두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호남 민심이 다시 대권의 향배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선 주자 가운데서 지지율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본선에서의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전면전에 나설 태세다.

일단 양측은 ‘양자대결’ 구도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최근 내일신문(2일 전국 1000명 디오피니언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와 쿠키뉴스(1~3일 전국 1031명 조원 씨앤아이 조사·)가 의뢰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 양자가 대결할 경우, 안 전 대표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양자대결시 전국 지지도는 내일신문 조사에서 안철수 43.6%, 문재인 36.4%, 쿠키뉴스 조사는 안철수 48.1%, 문재인 43.

7%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민주당은 현재의 대선 구도에서 양자대결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데 가정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측의 박광온 대변인은 4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양자 대결은 인위적인 설문 구조며 허상의 결과”라며 “양자 대결을 제외한 3자, 4자, 5자 대결에서는 문 전 대표가 우위를 보였다”고 일축했다.

문 후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도 YTN 라디오에 출연 “(내일신문의 여론조사) 유선전화 40%, 인터넷조사(모바일 활용 웹 방식) 60%로 조사하고 무선전화로는 하나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문 후보에게 흠집을 내려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선 구도를 ‘양자

구도’로 몰아가려 한다며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운 반응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양자대결에서 안 전 대표가 문 후보를 이겼다”며 “이긴 것은 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10개월 전 문 전 대표는 여론 조사상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양자대결에서의 승리를 대승으로 홍보했다”며 “대세론이 있을 때는 여론조사를 맹신했다가 그게 무너지자 언론 탓, 여론조사 탓을 하는 건 관권”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양자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호남 민심에서 안 후보가 사실상 문 전 대표를 제치거나 점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내일신문 여론조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호남권에서 안 후보가 문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으며 쿠키뉴스 여론조사 데이터에서는 호남권에서 안 후보와 문 후보가 점진 양상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가 정권 창출의 가능성을 보임에 따라 호남 민심이 크게 들쭉이고 있으며 이번 주가 지나면 안 후보가 호남권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문 후보 측에서 양자대결 여론조사가 실현 가능하지 않은 허상이고 인위적인 설문이라고 하는데 호남권은 사실상 안 후보와 문 후보의 양자대결이 불가피 한 곳 아니냐”며 “호남 민심의 변화는 전체적인 대선 구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가담지도 않은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호남권 여론조사 샘플 수가 1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성별, 연령별 기준을 맞췄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호남 민심은 준비된 후보가 실질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한 문 후보 지지자라고 강조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문 후보 측의 박광온 대변인은 “호남 민심을 한 두 번의 단순한 여론조사 수치로 재단하기 어렵다”며 “결국 호남 민심은 준비되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박주선 ‘아름다운 패배’

안철수 대세에도 경선 완주·진심 담긴 축하 인사

국민의당 경선이 안철수 후보의 완승으로 결정 났지만 끝까지 완주한 손학규 후보와 박주선 후보의 모습도 빛났다. 초반에 안철수 대세론이 강고하게 형성되면서 경선 패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후퇴하지 않고 공당의 후보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날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경선에서 큰 절을 올렸다. 스스로 썩어 결실을 맺는 밑일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후보는 4일 국민의당 마지막 경선자인 대전·충청지역 합동연설회에 연설에서 “국민의당 경선이 끝났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축하한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손 후보는 이어 “대통령이 되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며 “저는 더 큰 국민의당으로 거듭나는 길, 개혁공정 정부를 세워서 체제를 교체하고, 삶을 교체하는 길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연설 마지막에 “저에 대한 기대와 성원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절을 올리겠다”며 큰절을 했다. 박 후보는 지난 9월 아킬레스건을 다쳐 수술해 다리에 불편함이 남아있는 상태다.

박 후보는 “국민의당 집권을 위해 스스로 몸을 태우는 촛불이 되겠다. 스스로 때려 소리를 내는 종이 되겠다. 스스로 썩어 결실을 맺는 밑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정치인이 지는 길을 묵묵히 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일인지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할 것”이라며 “손학규 박주선 후보는 지면서도 이기는 길을 보여줬으며 이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대선 승리한 뜻으로 뭉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文, 중도 확장

이승만·박정희 전대통령 묘 참배

광복 70주년 기념·민생공약 조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본선에서는 과감한 중도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경선 승리 후 첫날인 4일 첫 행보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 같은 중도공약 행보는 ‘적폐정산’과 ‘국가대개혁’을 앞세워 민주당 경선에서 과반지지를 얻고 승리했지만, 본선에서 이기려면 앞으로는 국민 통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앞세워 중도층의 표심을 흡수해야 한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진보·보수 이념에 갇히는 대신 때로는 과감한 ‘우클릭’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도 중원 다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 측의 의원들 사이에서도 중도확장 주장이 나온다. 문 후보 경선캠프 공동 특보단장을 맡은 민병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후보의 저서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책의 문구를 인용하면서 “이제 본선이다. 과감한 확장주의 노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 첫 행보는 현충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4일 오전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정책 역시 이념 중심보다는 민생형이나 생활밀착형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제까지 ‘정권교체’만을 얘기했다면 앞으로는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로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라며 “공인인증서 폐지 공약과 같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약속들을 계속 선보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조는 향후 인재 영입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문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영입하는 등 진보진영에 갇히지 않는 인재 영입 행보에 나섰다.

또 문 후보는 전날 후보 선출 뒤 기자간담회에서 “사람들의 영입은 앞으로도 더 광복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도·보수층 인사가 더 합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가 없는 만큼 이런 영입이 ‘예비 내각(새로 캐비닛)’ 구성과도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람들의 영입은 앞으로도 더 광복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도·보수층 인사가 더 합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가 없는 만큼 이런 영입이 ‘예비 내각(새로 캐비닛)’ 구성과도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7 대선 브리핑

대선 주자들 ‘총리급’ 경호

경찰이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에 대해 ‘국무총리급’을 호호 경호에 들어갔다. 을호 경호는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에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부터 경찰의 경호를 받기 시작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로

확정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4일 부터 경호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도 지난 달 3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전 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직후부터 경호 대상에 올랐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 역시 선출 당일인 28일부터 24시간 경호를 받고 있으며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는 지난 2월 16일 대선후보로 확정됐지만, 경찰과 협의를 통해 4일부터 경호를 받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홍준표 내일 광주 방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6일 광주를 방문한다.

홍 후보는 이날 정우택 당 대표 권한 대행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에서 열리는 광주·전남 시도 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대선 필승결의대회를 갖는다.

당 지도부와 홍 후보는 앞서 광주 양

동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정책 간담회 뒤 대전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5일)에서 대선 필승결의대회를 열고, 이날 광주와 대전을 거쳐 7일 경기, 8일 서울에서 중앙선대위 발대식을 진행하며 세몰이에 나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